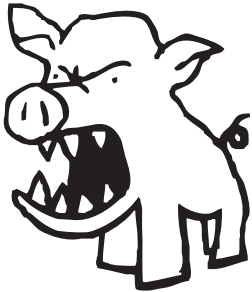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공옥진의 병신춤 편**

불온한 상상력, 그린피그



그린피그는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과 뜨거운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공연단체입니다.

의심없이 혹은 의심하지 않고
진행되는 우리문명에 대한 진단을 하는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제와 예술 형식의 진보를 고민하는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린피그의 작업은 저항 혹은
엑소더스를 위한 매뉴얼 혹은
도구입니다.

2018

〈폐지의 역사 (I'M F.)〉 공동창작, 김미현 연출 /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
〈꿈배양〉 공동창작, 김미현, 연출 /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 외

2017

〈합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메른씨를 준다고 했어요〉
윤미현 작, 윤한솔 연출 / 혜화동1번지
〈고발자들〉 박상현 작, 연출 / 니온씨어터
〈의붓기억-억압된것의귀환〉 그린피그 공동구성,
윤한솔 연출 / 독일 뮌헨 슈필아트페스티벌
(SPIELART Festival Munchen 2017)
〈오후만 있던 일요일 Part.2〉 배삼식 작, 윤한솔 연출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2016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 -데모버전〉
공동구성, 윤한솔 연출 / 일본 가나가와 예술극장
(KANAGAWA ARTS THEATRE (KAAT) Middle Studio)
〈비하인드 컷〉 공동창작, 박현지 연출 / 연우소극장
〈니는아 연기왕〉 그린피그 공동창작, 윤한솔 연출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2015

〈174517〉 전성현 대본, 윤한솔 연출 / 정보소극장
〈조치원 해문이〉 이철희 작, 박상현 연출 /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 제4회 벽산희곡상 수상작
〈치정〉 박상현 작, 윤한솔 연출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2014

〈오시비엔림 기록극〉 피터 바이스 작, 전성현 연출 / 혜화동1번지
〈짧은 후시딘〉 윤미현 작, 윤한솔 연출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 -데모버전〉 송만갑 바디,
전성현 글쓰기, 윤한솔 연출 / 혜화동1번지
〈1984〉 공동구성, 김민승 글쓰기, 윤한솔 연출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2013

〈두뇌수술〉 진우춘 작, 윤한솔 연출 / 혜화동1번지
〈빨갱이, 갱생을 위한 연구(가제)〉 그린피그 공동구성,
윤한솔 연출 / 혜화동1번지
〈테스테모나 퀘 손수건에 관한 연극〉 플라 보겔 작,
박상현 연출 / 혜화동1번지
〈공포〉 고재귀 작, 박상현 연출 /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2012

〈두뇌수술〉 진우춘 작, 윤한솔 연출 / 정보소극장,
혜화동1번지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수상
〈사이코패스〉 박상현 작, 연출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텃밭 킬러〉 윤미현 작, 윤한솔 연출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원치않은, 나혜석〉 김민승 작, 윤한솔 연출 / 안산예술의전당, 인천아트플랫폼 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 윤영선 작,
전성현 글쓰기, 윤한솔 연출 / 정보소극장

2011

〈나는아 백씨왕〉 그린피그 공동구성, 윤한솔 연출 /

혜화동1번지, 국립극단 소극장관 외

《연변엄마》 김은성 작, 박상현 연출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아무튼백석》 그린피그 공동구성, 전성현 글쓰기,
윤한솔 연출 / 혜화동1번지

2010

《의붓기억-억압된것의귀환》 그린피그 공동구성,
글쓰기 전성현, 윤한솔 연출 / 토탈미술관,
삼일로창고극장 외

《누가 무하미드 알리의 관자놀이에 미사일 편지를
꽂았는가?》 안재승 작, 윤한솔 연출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2009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 고재귀 작, 윤한솔 연출 /
떼아트르추,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외

2008

《빈커가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로워》 그린피그 공동구성,
윤한솔 연출 / 다원예술매개공간 외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최치연 작, 박상현 연출 /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진과 준》 박상현 작, 윤한솔 연출 / 선돌극장

2007

《나는 기쁘다》 이희진 작, 윤한솔 연출 / 정보소극장,
전국 12개 지역 순회공연 외

《그림 같은 시절》 정영훈 작, 박상현 연출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2006

《자객열전》 박상현 작 · 연출 / 우리극장



연출 윤한솔

연출작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나는야 연기왕》

《인터넷 이즈 세리우스 비즈니스》 《치정》 《안산순례길》 《1984》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데모버전》 《빨갱이. 갱생을 위한 연구》

《두뇌수술》 《원치 않은, 나혜석》 《아무튼백석》 외

수상

2016 제18회 김상열연극상 수상

2013 서울연극협회 올해의 젊은 연극인상 《아름다운 동행-비밀친구》

2012 제5회 한국연극협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 《두뇌수술》

2011 제2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판소리 적벽가에 이어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에 주목하는 연극 전통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다, 전통을 현재화하는 방식이다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 공옥진의 병신춤 편〉은 2014년 '해화동 1번지'에서 전통을 탐구하는 과정의 하나로 선보인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 - 데모버전〉의 연작 시리즈이다. 옛 판소리를 배우며 현대와의 접점을 찾고자 했던 전작에 이어, 올해는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과 1인창무극을 탐구한다.

작품은 공옥진의 '병신춤'을 키네틱 센서를 이용한 게임으로 배울 수 있을가에 대한 발상으로부터 출발했다.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창극단 시절을 통과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공간소극장 '공간사랑'에서의 공연 이후의 공옥진에 대해 주목한다. 그리고 이 탐구 과정에는 한국사의 질곡 속에서 공옥진이 춤을 배우는 과정과 춤이 발생하는 지점, '병신춤'이라는 형태에 대한 고민, 키네틱 센서가 읽어 내는 것과 읽어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녹아 있다. 작품은 키네틱 센서를 활용해 병신춤의 동작을 복제해 게임 프로그램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의 가부를 통해 공옥진의 병신춤을 배우며 병신춤을 '현재화'한다. 이를 위해 공연에는 공옥진의 수제자들이 등장한다.

불온한 상상력을 표방하며 그동안 연극계에서 적지 않은 문제작을 만들어온 그린피그.

그들은 공옥진과 병신춤을 무대로 불러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들지 않는다.

이 공연은 공옥진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 비롯된 춤사위/춤의 형태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찾아나가는 여정이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때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창작 작업에서 공연이 채 완성되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무대 위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시점에) 작품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늘 어렵다. 결과물을 모르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작업 과정에 대해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름의 해결책으로 이번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했던 흥미로운 담론들을 인터뷰의 형태로 풀어냈다.

인터뷰어. 김민승(작품 드라마터그)

인터뷰이. 박하늘, 정양아(출연배우)

편집. 조유림(남산예술센터 기획제작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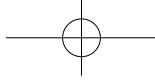


김민승 춤 연습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궁금해요. 기술적으로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 이외에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정양아 아무래도요. 그동안 아예 춤을 안 추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한국무용은 호흡 자체가 너무 달라요. 아마 젊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나이도 어리고, 춤을 조금 쳤던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현대무용을 해본 사람들은 동작을 크게 크게 움직이고, 몸을 짝 펴야 한다 등 이런 게 기준이었다면 한국무용은 다소곳하게, 가슴부분을 내려서, 그것 자체가 힘들어요. 다소곳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웃음)

김민승 그리고 보니까 다소곳이, 다소곳하게가 뭐예요?

정양아 우리는 보통 가슴을 펴고, 동작을 크게 뻗어서 추라고 하잖아요. 한국무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가슴을 뒤집지 말래요. 지난여름에 한국무용을 하는 분에게 속성으로 일일 특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한복은 저고리가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팔을 뒤집으면 저고리가 떠서 안 예쁘다는 거죠. 호흡을 내려서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호흡도, 한국무용은 우리가 보통 하는 호흡과는 반대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박하늘 절제해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작품에 저희가 익힌 승무, 살풀이도 나오는데요, 승무는 왕 앞에서 추는 춤이라 좀 더 경건하고, 마치 내 안에 수양하듯이 추는 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술 외라고 질문해주시긴 했지만, 거의 기술이 아니면 춤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동작 순서도 잘 안 외워지고요. 저는 사실 배우들 중에서 춤은 문외한에 가까워서 현대춤이나 한국무용이나 둘 다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댄스 센트럴(동작인식 센서인 키넥트로 작동하는 게임)'은 직선과 웨이브, 곡선이 있긴 하지만 동작이 딱딱 끊어지는데 한국무용은 특유의 곡선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동작을 잡아주셨는데, 이 동작의 곡선을 다시 기억해서 그대로 재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떤 곡선이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김민승 춤 못 추는 사람으로서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중에서 뭐가 더 난감했어요?

박하늘 정말 놀라운 건, 둘 다 연습하니까 늘기는 늘더라고요. 처음에는 둘 다 절망적이었거든요. 이제 큰일 났다. (웃음) 그래도 한국무용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 싶기도 해요. 쉽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김민승 그러면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보다 '댄스 센트럴'이 배우기 쉬웠어요?

정양아 이게 애매해요. 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게, 한국무용은 선생님이 직접 동작이나 자세를 잡아주고 가르쳐주셨다면 '댄스 센트럴'은 누군가가 동작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댄스게임은 대부분 박자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동작이 조금 틀려도 게임에서 요구하는 것만 맞추면 돼요. 동작도, 자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점수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김민승 그럼 댄스게임 연습하면서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게임에서 인물 캐릭터가 추는 동작에 초점을 맞췄나요?

정양아 게임 캐릭터와 똑같이 춘다고 했는데도 센서가 인식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동작을 확장해서 취야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점수는 높는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나요. 내가 좀 못 추고, 동작이 안 나와도. 그게 재밌어서 게임인 거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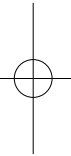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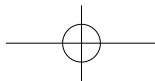
김민승 무엇이 특별히 더 쉽고 말할 수는 없는 거네요.

박하늘 그렇죠. '댄스 센트럴'도, 현대무용도, 한국무용도 모두 단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더 쉽다,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민승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공옥진 선생님의 병신춤을 익혀왔는데요,

병신춤 동작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동작, 혹은 마음에 안 들었던 동작과 이유를 대본다면?

박하늘 리서치 하면서 병신춤으로 스물일곱 개를 뽑아놓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신체장애의 몸으로서 춤을 표현하는 동작들이 있는가



하면, 뺑덕의 취중무나 심봉사의 잔치길, 밥상찾기, 칠레팔레춤, 탕고춤, 취권 등 장애의 몸이 아닌 춤으로서 특정 인물을
회화화시킨 춤까지 모두 합쳐서 스물일곱 개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따로 분류해서 보긴 했지만요. 병신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했잖아요. 공옥진 선생님께서 병신춤만 집중해서 길게 하시는 공연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심청전, 놀부전, 수궁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에 기반해 공옥진 선생님께서 1인창무극을 하는 중간중간, 일인다역을
하면서 조금 조금 추는 춤이 전부였어요. 남아있는 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병신춤 동작을 하나하나 다 따느라 애를 먹었어요.

정양아 사실 우리가 한 게 다 병신춤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작품 준비하면서 공옥진 선생님과 관련된 영상 자료들은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병신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춤이 거의 없고, 어떤 스토리 안에서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 병신춤이라고
보이는 동작들만 저희가 추출한 거예요. 춤이 워낙 없다 보니 이거라도 다 해보자! 라고 해서 동작을 뽑아내고 고른 거죠.
방금 병신춤 동작을 취권, 밥상찾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원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저희끼리 편하게 소통하려고 붙인
이름이에요. 밥저글링, 기세등등, 건드림춤 같은. 저는 저희가 딱 스물일곱 개의 병신춤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면서도 힘들었던 건
안짱걸음이에요. 공연 때 아주 느리게 추는 춤이에요.

김민승 춤을 단계별로 아주 느리게 해체했기 때문인가요?

정양아 아노, 처음 할 때부터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병신춤인 것 같았고, 가장 병신춤스러움이 잘 표현된 동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동작이 따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멀어지기도 했다가, 점점 애정이 생기고, 이제는 애증이 된 것 같아요.

박하늘 저도 안짱걸음이 가장 어려웠어요. 신체 균형을 맞추는 점도 어렵고요. 공옥진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몸의 리듬에 맞게
추시는 고개, 표정, 손, 발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느리게 따라 해보려고 동작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도 고개나 표정이 되면 팔이
안 된다던가, 이걸 하면 저게 안 되고 그랬어요.

김민승 사실 연속된 무언가를 분절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무엇이 되겠죠. 분절 자체도 어디서 나눠야 하는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자의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동작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게 있나요? 혹은 이 동작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게
있었는지?

정양아 만일 병신춤만 모아있는 영상이 있었다면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선생님이 병신춤을 추는 공연을 실제로 보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위로 병신춤을 표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신춤이 당시 장애인을 비하하는 춤이라는
논란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맞았다고 할 정도의
병신춤을 흉내 내는 영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본 것 같아요. 만일 병신춤만 모여 있는 영상이 존재했고, 저희가 그 영상의 춤을
따서 했더라면 모르죠. 그런데 저희가 딱 동작들은 대부분 병신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에 대한 마음의 문제를 조금은
덜었던 것 같아요.

김민승 결국은 안팎걸음 같은 동작은 이번 공연을 위해 일부러 본질했지만
그것 말고도 대부분의 병신춤 동작들이 원래의 맥락에서 단절된 채 가져온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배우들의 정서에 (생각지 못한) 영향을 미쳤겠네요.

박하늘 공옥진 선생님은 병신춤뿐만 아니라 동물춤 등으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니중에는 전통무용이 아닌 창작무용이고, 전수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 지정도 취소됐지만 어쨌든 무형문화재 지정이 될 만큼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공옥진 선생님과 병신춤에
대해 찾아봤을 때 제대로 남아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서 고집어내고, 모아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의외였어요. 어디엔가 잘
보관되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라웠어요.

정만아 조금 궁금했었어요. 병신춤을 추는 대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춤을
추셨을까. 기사를 찾아보니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에 선생님께서 1981
년부터 머물며 작품활동을 하고 후학을 길러낸 '공옥진예술연구소'라는
전수관이 있다고 해서 답사를 하러 갔었는데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 아니다,
새로 개축할 예정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1인창무극 관련 자료들을 전시해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전사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이 다른 데 가고 없대요. 박물관이랑 비슷한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
자료가 남아있다고 해도 많이 있었을 것 같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렇게 유명하신 예술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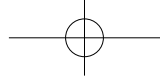
박하늘 심지어는 세상에 알려진 사실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과
1인창무극과 관련한 연혁들을 다 찾아봤는데 연도라던가 다 조금씩 달랐어요.
한국무용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공옥진 선생님의 생애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내린 결론은, 사실과 진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
공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김민승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래도 마음에 무언가 찝찝한 구석이 남아 있지 않나요?

정양아 그렇죠. 초반에는 공옥진 선생님 편도 들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아보고 선생님의 생애를 접했을 때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들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거짓일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김민승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무대 위에서 “제가 공옥진의 수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작품을 위한 강제적 수제자인 하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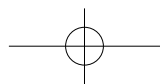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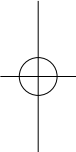
박하늘 병신춤 동작을 따라 하면서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형문화재 지정 취소 이유 중 하나도 전수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춤을 따라 하다 보니까 공옥진 선생님의 한과 흥에 맞춰 춘 저 춤을 전수받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전통춤, 한국무용을 가르쳐주셨던 두 선생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선생님의 선생님께 춤을 배울 때 일대일로 직접 만나서 배운 거였기 때문에 특별한,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있는 게 아니래요. 정말 자세하게 자세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어깨너머로 보고 익히고 따라 하는 식으로 배우는 게 우리 전통의 계승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묻힌, 혹은 묻힐 수도 있었던 예술가인 공옥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찾고 찾아서, 병신춤 동작을 따로 공부한 그 열정 자체로 수제자인 것 같기도 해요. 한없이 부족하지만요.

정양아 작품을 준비하면서 공옥진 선생님과 관련한 인터뷰도 하고, 한국무용 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물어보고 했는데 요즘의 젊은 한국무용 전공자보다 오히려 공옥진 선생님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외로 선생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한국무용계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사들을 찾아봐도 선생님을 칭할 때 ‘우리 시대의 광대’라는 수식어가 대부분이었고요. 한국무용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전공자들은, 수업시간에 공옥진이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기억하지 못했겠죠. 사실 저희가 선생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직접 만나 뵈는 적도 없었고요. 그래도 한국무용 전공자 모두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나보다 공옥진 선생님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 물론 나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병신춤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수제자에 다가가고 있지 않나. 춤도 이렇게나 추고 있는데. (웃음)

김민승 자부심이 느껴져요.

정양아 그건 아니에요. 정말 흉내도 못 내겠어요. (웃음)

박하늘 병신춤을 열심히 따라 하고 익히는 건 좋은데 춤에 대해 의심스러운 면도 있어서 자부심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요. 장애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병신춤을 찻다는 얘기도 있고, 병신춤이라는 말을 선생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공옥진 선생님이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손잡고 춤도 덩실덩실 추면서 공연하셨을 때, 장애인들이 공감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떤 공연에서는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비하했다, 희화화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연습 초반에 병신춤 영상을 보고 다 같이 취보자고 해서 찻았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마음에 장벽이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 장애인을 함부로 표현한다, 장애를 춤으로 표현한다는 마음이에요. 장애의 몸짓을 희화화를 시킨 영상을 봤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장애인을 놀리는 것 같고 비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연습이었지만 병신춤을 흉내 낸다는 게 내가 어설퍼서 못하는 문제는 둘째 치고,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덜해졌어요. 익숙해진



것도 있겠지만 아예 몰라서 그랬던 이유가 해결이 되어서인 것 같아요. 완전한 해결 아니지만요. 나는 여전히 장애를 이해 못 하는, 할 수 없는 비장애인이고, 그렇지만 예전보다 더 알려고 노력했고, 공부했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점을 알아가고 있으니깐. 의식의 변화랄까요.

김민승 그렇다면 공옥진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이 병신춤을 추는 동영상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장애 비하라는 느낌이 들었나요?

정영아 장애 비하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알거나 봐서가 아니라 표현이 과하지 않아요. 몸의 왜곡을 과하게 시키지 않아요. 병신춤을 추되 이상하게 추는 게 아니라 장단에 맞춰서 신체 중 하나가 들어진다가거나 걷기가 힘들다가거나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능했던 건 병신춤이 양반들 놀음 다음에 나오는 데요. 양반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면 같은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보기에 병신춤이 이해가 됐을 수 있죠.

박하늘 그런 것도 있어요. 몸이 불편한 정신이 모자라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지혜롭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맥락상.

이야기가 무르익다 보니 인터뷰가 대답의 형식처럼 흘러갔다.

김민승 유튜브에 병신춤을 소재로 영상을 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영상에서는 특별히 불편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어떤 영상에서는 명백히 장애 비하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공옥진 선생님 영상에서도 그러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장애를 소재로 웃기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고 제가 실제 공연장에서 본 것도 아니니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박하늘 장애인을 희화화한 느낌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병신춤을 접했을 때 괜찮을까? 이걸로 공연을 해도 되나? 이런 의심도 들었어요.

김민승 결국 전통에 대해 던지는 질문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병신춤이 사실 공옥진 선생님뿐만 아니라 탈춤에도 들어가 있던

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옥진 선생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적이지요. 문화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전통이 맞는가'의 문제, 그리고 병신춤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이면

되는가'의 문제. 사실 그 점에서 '공옥진과 전통'을 엮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부터 상당히 흥미롭고 자극적인 시도라고

생각해왔어요.



박하늘 전통에 대한 도발? 여러 의미의 도발이죠. 병신춤을 전통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도발이죠. 다른 고유의 문화재 지정을 받거나 전수자가 있는 춤도 아니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비난을 받은 적도 있고요. 생애사만 들여다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김민승 사실 이 문제는 비단 병신춤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통 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수많은 것들, 전래동화 등을 비롯해서, 거의 전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많은 문화적 요소들은 모두 괜찮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이 커지는 단초 역할을 이 작품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하늘 흔히 TV 속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동네 바보 흥내, 영구 흥내, 대중들을 웃기기 위해서 모자란 사람 흥내를 내는 게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시대가 반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배우 신현준이 게스트로 출연했었잖아요. MC들이 2013년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주인공이었던 신현준 씨에게 '기봉이 인사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웃다가 논란이 됐었고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인권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공욕진 선생님이 병신춤을 흥내 내는 것을 보고, 웃고, 공연 속에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당신 남편이 밖에서 오입하고 와도 용봉탕을 끓여줘야 한다는 등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다 공감하는 건 아니죠. 옛날 분이시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셨던 거겠지 하는 게 있는 거죠. 선생님을, 병신춤을 추적해온 입장에서 무형문화재 지정도 취소됐다고 하고, 전통무용계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했어요. 귀하고, 계승이 잘 되는,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각설이 타령처럼 대중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의 1인창무극이 더 재밌고 좋은 거 아닌가? 전통이라는 게보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과 동시에, 한국무용 선생님들께 춤을 배우면서 들었는데 선생님들도 춤을 전수받을 때에 시험도 되게 어렵고, 영상도 잘 남겨져있지 않았대요. 이유인 즉,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할 텐데 지금 영상을 남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고, 선생님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온전하게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전통예술을 더 보편화시키고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럴 뜻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 게 놀라웠달까요. 한국 춤이고 한국무용인데, 우리나라 사람 아무나가 춤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전통인가. 우리 고유의 맛을 느끼는 맛도 있었는데 말이죠.

김민승 이울배반적 감정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전통 계승에는 나름의 방법론이 있을 거리는 믿음과 함께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함께 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전통이 전수된다고 믿으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정양아 그래서 많이들 도망간대요. 못 견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박하늘 예를 들어 '댄스 센트럴'처럼 일반 댄스는 특정한 박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무용을 배울 때에는 보통 입장단으로 배워요. 어떤 구간에서는 늘였다가 줄였다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고유의 장단이 정말 다양한데 어렵더라고요. 선생님이 배운 장단도, 정답은 아니라고 하셨고요.

김민승 그럼 현대무용이나 서양무용은 규격화되어 있나요?

정양아 그렇다기보다 현대무용, 서양무용은 박자가 있잖아요. 노래도 그렇잖아요, 감정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데 공옥진 선생님 공연 영상에서 병신춤 동작을 따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호흡에 따라 동작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둘셋 둘둘 셋 입장단에 맞춰서 했을 때 동작이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영상만 보고 따니까 힘든 부분인 거죠. 승무 수업 들을 때 배웠는데 한국무용과 서양무용이 다른 점은, 서양은 심장박동을 생각해서 박자를 센대요. 그래서 박자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무용은 폐, 호흡, 즉 사람의 호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날에 따라 숨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캐너머로 배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만일 선생님이 어제는 저렇게 추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추시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옛 내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아서 규격화를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정리하려는 사람도 있었겠죠. 병신춤뿐만 아니라 한국무용이라는 전통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김민승 첫 장면 구성을 봤을 때는 배우들이 장애의 몸짓을 표현할 때 분명 병신춤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달리 말하자면, 장애 비하의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동작들이 계속 변주되고 해체되면서 굉장히 묘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반전이라고 부른다면 그 반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사견이지만 저는 병신춤에 대해 장애 비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박하늘 작업 초반에 배우들이 장애를 가진 예술가분들을 인터뷰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옥진 선생님이 당신이 병신춤을 춰서 장애인들의 한을 풀어준다고 하셨는데, 진짜 한을 풀어주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연에 등장하거나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춤을 출 수 있게끔 해줘야지, 왜 비장애인이 장애를 표현하면서 한을 풀어준다고 하느냐고요. 그랬으면 우리가 춤을 출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이 공연 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죠. 한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김민승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순간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장애 비하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루는 대상에 대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면, 그걸 무시하고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비하 맞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그런 점들을 아예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제대로 정면돌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안의 불편함을 부인하고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건 죽도 밥도 아닌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러한 모순투성에 답 없는 고민의 과정은 우리 작업에서 필수적인 것일지도 몰라요. 병신춤을 변주했을 때 비하의 느낌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느꼈듯이,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차원에서 전통 계승이라는 어려운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이게 불편한 거 맞아. 그럼 우리 이제 뭘 할 수 있지? 우리 공연의 의미도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찾을지도 모르죠. 그러한 때에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고 질문이 내 안에서 우러나올 수 있게 되니까요.

정영아 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애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는 척하면 안 돼요. 어제 연출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작품이 질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작품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무언가를 제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라도 던져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닐뿐더러 그걸 위해 하는 공연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 또한 그런 것처럼, 모두가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의 전환이 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같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고, 같이 바꿔나기야 하는 문제니까요.

김민승 관객들이 각자의 질문을 가지고 나가면 성공한 거겠죠.



박하늘

〈페이지의 역사(I'M F_)〉
〈오후만 있던 일요일〉
〈공포〉 〈안산순례길〉 외

원규리

〈로미오와 줄리엣〉 〈치정〉
〈두뇌수술〉 〈여도〉 외

임정희

〈의붓기억-억압된 것의 귀환〉
〈안산순례길〉 〈나는야 연기왕〉
〈비하인드컷〉 〈인터넷 이즈
씨리어스 비즈니스〉 〈치정〉 외

정양아

〈고발자들〉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나는야 연기왕〉 외



최지연

〈전화벨이 울린다〉 〈고발자들〉
〈미디어〉 〈치정〉 〈조치원해문이〉 외



최지현

〈페이지의역사(I'M F_)〉 〈고발자들〉
〈함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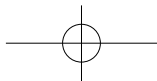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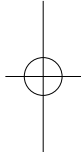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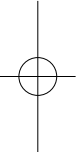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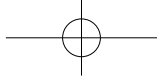


황미영

〈페이지의역사(I'M F_)〉 〈동이〉
〈안산순례길〉 〈고발자들〉 〈미디어〉
〈나는야 연기왕〉 〈치정〉 〈조치원해문이〉
〈테스트랩〉 〈만리향〉 외







6 월 25 일

우리의 여정은 공옥진의 병신춤을 누가 더 잘 따라하느냐가 아닌 현대 우리가 하는 '병신' 되기는 무엇이나를 찾는 여정이다. 오늘은 그 시작의 날.

이번 주는 전통과 공옥진, 장애를 공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병신춤을 아는지? 본 적이 있는지? 혹 볼쾌했다면 어떤 점에서 볼쾌했는지도 얘기했다. '장애를 지칭하는 어휘, 장애의 문화적 규범?' 어떤 사람은 못 생긴 게 어떤 장애보다, 더 큰 장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일반인과 장애인의 구분 자체가 차별인 것 같기도... '장애. 장애. 장애.' 장애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공옥진의 병신춤은 표현이 아닌 행위. 이번 공연에선 표현이란 것은 없다.' 예를 들어 고통이라면 행위 자체가 즉 고통이다. 머리 속에 각각 돌아다니는 '전통, 공옥진, 장애...' 이 키워드들이 하나의 공연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거, 이거, 그냥 이해했다고 생각하긴 쉬워도 정말 진심으로 이해 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항상 그랬지.

7 월 2 일

비장애인들의 감동을 위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인 것처럼 표현(연기)하는 것은 정상일까?

병신춤을 재현하면 여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웃음이든 울음이든 감동이든 그 정체성을 부각해서 소수자의 입장을 공연한다고 했을 땐 사람들은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의 사고에 내재되어있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채 창작작업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비하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장치적 희노애락을 만드는 것이 아주 큰 비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치 없이 공연이 되어야한다. 그래야 병신춤이 '춤'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법!!

7 월 5 일

Dance Day !!
오늘 낮에는 한국무용을 배우고, 오후엔 xbox '댄스센트럴' 춤 연습을 했다. 배우들의 땀은 마를 시간이 없다. '땀에는 소금기가 있다. 그래서 땀 흘리는 사람은 썩지 않는다.'

7 월 7 일

'불편하다. 하지만 더 불편하다.'
우리는 장애의 이미지를 알고 있는 것뿐이다. 그 중 일반화된 혹은 선입견에 의해 형성되고 소비되어진 장애에 대한 이미지들이 매체에 등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흉내내는 것과 비교한다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흉내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지워야한다. 그래야 장애를 희화화하지 않을 수 있다.

7 월 9 일

김민승 (드라마터그)

'병신'의 어원, 어원상 자극적이고 문제가 되면 전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인지? 어원상 문제가 없으면 경우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장애인이 병신춤을 추는 것과 비장애인이 병신춤을 추는 것의 차이는? 병신춤을 연습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가?

윤한솔 (연출)

공옥진의 병신춤은 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공옥진의 춤이 서사와 관계를 맺는 걸 보면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지 않을까? 배우의 서사, 후광을 제거하고 몸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자기 신화화하는 공옥진의 이야기를 나로 가져오는 것.

8 월 6 일

오늘은 배우들이 써 온 '사실 저는 공옥진의 수제자인데요.' 글짓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제가 공옥진 선생님의 수제잔데요. 20대 후반에 서울에 올라와 연기를 시작했던 나는 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서울 생활에 지쳐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 생활 한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이 대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지진만이 문제였다면 저는 한국에 다시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략...)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고 이제 뭘 하며
 살아야하나 하는 막막함에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나가 하는 짓들 못 보고 살겠으니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고 평소라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지만 그 날은 모든 것에
 화가 난 상태였고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중략...) 그렇게 한참을 운전 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표지판에서 영광이라는 글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글자만을
 따라 표지판이 시키는 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고 보니 어느새 공옥진
 선생님의 집 앞이었습니다.”

8 월 1 2 일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춤을 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일까?’
 사실 춤이란 것은 무언가에 귀속될 수 없다.
 ‘저건 무엇을 표현한 거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춤을 왜 추는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봐야하지 않을까.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춤은 그냥 춤이다. 그렇다면 병신춤을 잘 춘다는
 것은 무엇일까? 태초에 뭘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냥 춤을 춘 것이다.

병신춤이 ‘병신’ 같지 않은 게 문제인가,
 ‘병신’ 같은 게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이 어떤 춤을 출 것인지를 결정하고,
 춤을 추는 행위에 밑바탕이 되는
 개념을 만들어줄 것이다.

8 월 2 8 일

우리는 공옥진 선생님의 공연 영상을 보다가
 공옥진 선생님의 재담에 눈길이 갔다.
 이어 배우들은 옛날 재담을 찾아왔다.
 ‘만주의 달밤’, ‘염불타령’, ‘장대장타령’,
 ‘장님소리’, ‘영터리씨의 영터리이야기’,
 ‘콜롬비아 레코드-꿀볼건’, ‘딸라부인’ 등.
 이거, 이거. 묘하게 웃기다.
 다들 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안 웃긴 것은 아니다. 그렇다.

8 월 3 0 일

윤 한 솔 (연 출)
 살풀이, 승무를 출 때와 댄스센터럴 할 때의
 다른 점을 체감하는 것이 있나?
 한국무용과 댄스의 다른 점은?
 거부한다면 몸이 왜 거부하는지?
 어디서 전통을 못 받아들이는지?

원 규 리 (출 연 배 우)

박자가 느껴지면 들썩들썩하는데
 한국무용은 하지 말라고 하니 어렵다.

정 양 아 (출 연 배 우)

전통이란 게 얼마나 접했냐의 차이인 듯하다.

임 정 희 (출 연 배 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발레는
 피아노 시키듯이 많이들 시킨다.
 하지만 한국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9 월 7 일

**우리의 여정은 공옥진의 병신춤을 누가 더
 잘 따라하느냐가 아닌 현시대 우리가 하는 ‘병신’
 되기는 무엇이나를 찾는 여정이다.
 오늘은 그 시작의 날2.**

‘왜곡된 몸 만들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 마다 몸의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닌
 ‘병신’으로 가야 한다. 감각적으로 팔을 꼬면
 그다음 ‘나’는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이 같이 가야 한다.
 팔을 못 움직이게 하려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안 된다.

9 월 2 5 일

처음으로 극장 무대를 밟았다.
 무대에 들어온 후에도 장면이 삭제되고,
 추가되고 수정의 연속이다.
 배우들은 매일 매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워 보인다. 왜 일까?
 그 여정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부터의 거부, 극단적인 집단

윤희술 연출과 그린피그의 작업에는 ‘실험정신이 뛰어난, 새로운 방식, 파격적인 시도’와 같은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현대 예술에서 지루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수식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린피그의 초기작부터 최근작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연극’이라는 형식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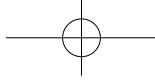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누가 무하마드 알리의 관자놀이에 미사일편치를 꽃았는가〉(2010)는 남자 배우만 17명이 등장해 사각 링 위에서 생존의 몸부림치는 남자의 세계를 라이브밴드 ‘알개들’과 함께 펼쳤고, 〈치정〉(2015)에서는 한국의 정치사와 깡패사를 굴비 워드 엮어냈다. 그런가하면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한 명의 ‘배우’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우들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냈던 〈나는야연기왕〉(2016)도 있었다. 이 외에도 그린피그 창단 이후 윤희술 연출이 극단 내에서 처음으로 연출했던 〈나는 기쁘다〉(2007), 맹목적인 종교 현상에 대한 비아냥거림을 드러낸 〈빈커가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로워〉(2008), 전쟁의 트라우마를 화두로 삼은 〈의붓기억-억압된것의 귀환〉(2010), 전 출연진이 삭발을 감행한 〈1984〉(2014) 등 도발적인 작품들은 주제와 예술 형식의 진보를 고민하는 그린피그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번 작품의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데모버전〉(2014)은 전통의 계승 문제를 적벽가의 한 대목을 소재로 다루었는데, 10명의 배우들이 일렬로 무릎을 꿇고 앉아 판소리를 배우는 경험을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무엇보다 배우들 뒤편에 “전환기의 벨, 진동이 타지는 순간 공연을 종료합니다”라고 노란색의 볼드체로 크게 강조된 문구로 유명한데, 실제로 휴대전화 진동소리가 울려 공연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공연을 종료해 관객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사람들은 그린피그가 관객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데모버전〉(2014)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연의 주제가 매우 진지하고, 판소리라는 전통 예술 장르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대일 구전심수 방식으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공연 도중 불필요한 소음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어쩌면 이것은 전통과 체제, 그리고 요지부동의 엄격한 ‘풍습’에 대해 가장 ‘그린피그다운’ 통렬한 비판이었을지도 모른다.

동시대 전통을 향유하는 방식에 대한 불편한 화두

지난해 공동제작 공모에서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데모버전〉(2014)의 연장선상에서 전통 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다면 공옥진과 병신춤이라는 소재에 대한 연극 작업을 제안하였고, 참신한 발상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올해 시즌 프로그램으로 결정되었다. 그것이 이번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의 첫 시작이었다. 두 작품의 공통된 줄기는 우리가 전통을 누리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다. 지금 공옥진을 무대로



소환한 것도 공옥진과 병신춤, 1인창무극을 통해 전작에 이어 전통의 계승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고자 함이다. 전통예술에서 주류에 속하지 않았던 공옥진과 병신춤을 전통 계승의 측면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그린피그의 선택은 이미 그 자체로 전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전통이라고 불러온 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무엇이었던가? 등의 도발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그린피그 배우들은 병신춤을 어떻게 익힐 것인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탐구하면서 공옥진과 관련한 무수한 자료들을 모으고, 공연 라이브 영상을 구해 병신춤의 몸짓을 익혔다. 그 과정에서 몸을 어떻게 왜곡시켜야 소위 말하는 장애의 몸을 가질 수 있는지, 몸을 왜곡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춤을 출건지에 대해 계속해서 토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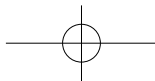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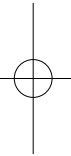
병신춤을 익히는 과정과 한국무용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춤이 만들어지는데, 키넥트 센서를 활용한 게임들을 접목한다. 작품에는 한국사의 질곡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예술가로서의 공옥진의 삶도 녹아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들이 장애의 몸짓을 재현하게 되는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며 무엇이 춤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등의 질문을 남긴다.

**망할 듯
망하지 않는
그린피그의
작업**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의 대담하고 낮은 연극은 자주 관객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메시지를 찾는 관객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알궂게도(알뭇게도)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의 작품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 이번 작업에서도 공옥진과 병신춤이라는 자유로운 소재 발굴에서부터 출발해, 지극한 탐구와 여정을 통해 현대예술에서 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 실체를 정면 돌파한다.

무대에 오르기까지, 각종 리서치로부터 나온 일련의 과정들은 매우 위험천만한 시도였으며 매우 아카데미틱한 작업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작업 흐름 아래 누적된 발견들이 관객들에게 얼마만큼 가닿을지에 대해선 확고한 긍정적인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공연 직전까지도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기에 관객을 많이 모아야 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여야 하는 극장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서사의 재현이라는 전통적 연극 만들기에서 벗어나 드라마가 아닌 상황으로 내레이션을 만들어낸다거나 구조를 세우는 방식들은 이미 현대 연극에서 중요한 중심축이 되었고, 현대예술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사고의 틀을 뒤집어놨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연극의 경직된 규범이나 기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 너머로 나아가 세상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연극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인가? 를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는 그들의 몸짓과 투쟁에 함께하기를 (감히) 바라본다.



공옥진과 병신춤에 대한 리서치 과정에서 알게 된 공옥진의 생애를 공연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보로 정리했다. 여러 자료들을 수렴해본 결과 기록들이 연대나 시기별로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상이했다. 대부분은 공옥진의 인생유전에 관해 소설화한 것과 단편적인 글, 보도기사였으며 일대기를 다룬 자료상의 기록들조차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주관적인 서술방식을 하기보다 불명확한 연도나 시기를 제외하고, 자료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시기별로 엮었음을 미리 밝힌다.

1931 (1933년 출생설) 전라남도 승주군 송광면 추동에서 판소리 명창 공대일의 2남 2녀 중 둘째 딸로 출생	1979 1인창무극 〈홍보가(전)〉 발표
1937 (1940년 출생설) 어머니 병사. 흥내내기 춤을 시작	1981 미국 케네디센터에서 한국전통무용 공연(위싱턴, 뉴욕, LA 및 일본 공연) 전남 영광장터에서 공옥진 놀이판 공연. 1인창무극 〈심청전〉 공연, 민속무용 제1집 〈허튼춤〉 발표
1938 (1937~1944년 일본생활설)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갈 위기에 처하자 친원에 무용가 최승희의 집으로 팔려감. 일본인 아마모토 집으로 다시 팔려감. 전쟁 발발 후 귀향	1982 예술연수원 개원. 소록도 공연
1943 (1945년 설) 전남 영광에서 아버지에게 심청가, 흥부가 등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움	1983 1인창무극 〈수궁가〉 발표. 60여회의 공연 기록을 세움
1945 조선 창극단 입단	1984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1인창무극 공연. 공대일 명창과 광주에서 공연
1948 전북 고창 명창대회에 참가하여 장원. 이 무렵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혼	1986 세종문화회관에서 1인창무극 공연. 런던페스티벌 국제예술제 참가
1953 구례 천운사에 입산하여 수도 시작. 영광불갑사로 옮겨 지내다 아버지로 인해 환속	1991 호암아트홀에서 1인창무극 공연
1957 임방울 창극단 협률사 입단	1994 세종문화회관에서 1인창무극 〈학녀의 한〉 공연. 전국에서 경로 위로 잔치
1961 김연수 우리 국악단 입단	1998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
1964 김원술 안성 국악단 입단	1999 전남 도청 문화재 위원회에서 본인이 창작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결국 부결됨
1966 박연수 국극협회 입단. 〈처녀별〉 〈동명성왕〉 〈해방가〉 〈심청전〉 등 각종 창극에서 주역으로 공연	2004 1인창무극 창시자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으나 뇌졸중 재발, 교통사고
1974 제6회 남도문화제에서 갈쌍놀이로 최고상 받음	2007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1978 서울 소극장 '공간사랑' 개관 1주년기념 〈전통무용의 밤〉에서 1인창무극 공연	2010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6호 '판소리 1인창무극 심청가' 예능보유자 지정 ¹⁾
	2012 2012.7.9 지병으로 별세
	2016 문화재 지정 취소

1) 영광문화원, 『근현대 인물사 영광의 인물』, 2016, p.847, 2)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고시(2010.11.06. 전라남도 고시 제 2010-326호)에 의하면,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공옥진은 판소리 명창가계를 타고 태어나 성원목, 김연수, 임방울 등 명창들에게 소리를 학습하였다. 또한 어려서부터 창극활동을 해오면서 판소리의 음악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니리와 발림 등을 극적으로 발전시켜 일인창무극을 연행해 왔는데, 이는 문화변용의 전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판소리에 기반을 두고 문화변용의 형태로 발전한 일인창무극 가운데 주 연행종목인 심청가 예능보유자로 인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은 리서치 아카이빙에 기반한 작품으로,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에 이르기까지 참고한 자료들을 관객들과 공유한다.

영상자료

<허튼춤/공옥진>, VHS, 1979,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VD전통무7902
 <공옥진 놀부전>, 천송오 기증, 1984, 국립예술자료원 소장 영상, VD공공진8401
 <공옥진 심청가>, 천송오 기증, 1984, 국립예술자료원 소장 영상, VD공공진8402
 <공옥진 수궁가>, 천송오 기증, 1984, 국립예술자료원 소장 영상, VD공공진8403
 <홍부전>, 천송오 기증, 1991, 국립예술자료원 소장 영상, VTC-0019
 <일인 창무극의 명인 공옥진>, MBC, 1992, VTV-0998 ; VD공공진9201
 <한국의 예인>공옥진(비디오 녹화자료), 1-4, SBS 프로덕션 제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96
 <극단 동그라미 창단 기획공연: 공옥진 1인 창무극>, 1999, 국립예술자료원 소장 영상, DT동그라미601
 <공옥진 1인 창무극 (DVD)>,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9, AHB DT동그라미601
 <전통무용 제1집 명주전 DVD>, 200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DD전통무7901
 <공옥진 창무극: 동물춤...>, VHS, 국립예술자료원 소장, VD공공진9101c.2
 <A & C 공연무대: 공옥진 1인 창무극>, 서울: A & C 코오롱, 2004, VTV-6242
 영화 <중광의 허튼소리>(1986), <고독이 몸부림칠 때>(2004), 한국영상자료원
 경기평의 토크 & 토크(비디오녹화자료).
 31. 춤과 소리 한평생 이 시대의 광대 공옥진 여사 편, Q Channel : 중앙방송,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007
 한국전통무용가 일인창무극(공공진), 수도권미디어, 2008, SD3CD-3418 음반
 재능 무인대: 우리아이 미래발전. [7]전통예술가 편, 세 번째 이야기 - 희망동화: 공옥진, MBC C & I,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장, 2011.5.27
 인물탐구 조영남이 만난 사람. [29]공옥진, KBS 미디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013.01.29
 유튜브 artscoreatv
<https://www.youtube.com/channel/UJCTQvKBIV0NmG4zcQ-tUTjQ>

방송자료

MBC <내고향 큰잔치> 27회, 광주직할시, 1986.11.16
 MBC <웃을 수 없는 사람 - 공옥진>, 1990.11.13
 MBC 우리시대의 명인 <춤과 웃음한바탕 일인창무극 공옥진>, 1991.06.13
 MBC 우리시대의 명인 (1인창무극의 명인, 공옥진), MBC 프로덕션, 1992
 MBC <한국의 소리와 몸짓-공옥진여사의 동물춤>, 1993
 SBS 다큐드라마 <한국의 예인 공옥진> 녹화비디오테이, 1996
 MBC <20세기 한국의 인물들 2부>, 1999.12.22
 MBC 성공시대 122회 <병신춤의 달인 공옥진>, 2000.06.04
 MBC <명예의 전당>, 2002
 KBS 스페셜 <독점공개, 공옥진 "누구나의 슬픔을 놓아주라">, 2009.11.01
 KBS Media, DVD: <故 공옥진 추모 다큐> 위대한 광대 공옥진, 2012
 MBC <한국의 우리는 누구인가, 2한신 바람 또 산바람>
 KBS 창무극 <심청가 中 심봉사 목욕하는 대목> 소리/공옥진
 KBS 공옥진의 1인 창무극 <친절한 옥진씨 - 흥보가 중 <놀부 찾아가는 대목>, 원송이춤

아카이브영상상세

MBC 병신춤(공옥진 리허설), 1981.09.15
 MBC 병신춤(공옥진), 1982.06.12
 MBC 공옥진 수궁가 신작 발표회(공옥진 인터뷰, 창무극 수궁가 공연실황), 1983.09.27
 MBC 전국 인구 및 가족 계획 사업 촉진대회(대휘, 식후 공연), 1985.03.19
 MBC 한국의 춤과 북 공연(공옥진 공연, 호응하는 관객들), 1993.08.29
 MBC 공옥진 일인 창무극(문장, 공연 실황), 1994.01.26
 MBC 서울무례 개관기념 공연, 1995.12.26
 MBC 살풀이춤 공옥진, 남미 탱고 공연규

(인터뷰, 대휘, 탱고, 식사), 2001.03.26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예술자료원 소장본)
 공옥진 1인 창무극 - 소년 · 소녀 가정놀이 "한이 춤판" 전국순회공연!, 1992.5.10, 세종문화회관
 공옥진 일인창무극 籠女의恨 - 94 국악의 해 한과 설음의 응어리 창과 춤으로 풀며, 1994.1.26, 세종문화회관
 공옥진 1인 창무극, 1999.7.3~1999.7.18, 극단동그라미, 동송출 대극장
시각자료 (국립예술자료원 소장본)
 공옥진의 일인 창무극, 1981, PR 04164
 공옥진 : 1인 창무극 <포스타>, 미도파메트 로출, 1993, PT B11-20
 공옥진 1인 창무극 (공연프로그램) 극단 동그라미, 1999, PR 08116
 공옥진 : 1인 창무극 극단 동그라미 <포스타>, 1999, PT S69-22
 (이 시대 최고의 명인)공옥진 그리고 탱고 : 창 Singing 무-Dancing 극-Drama (포스타), 공옥진, 2000, PT S55-22
 <공옥진: 쓰러지지 않는 예술혼: 1인 창무극> 사진자료, PS PS059-43
 <공옥진> 사진자료, PS PS043-09
 <공옥진> 사진자료, PS PS050-10
단행본 (국립예술자료원 소장본)
 沈淸庵 (공연프로그램) : 孔玉振의 一人歌舞, 김영태 기증, 공간사랑, 1978, PR PR23066c.2
 興甫歌 (공연프로그램) : (재)한 孔玉振의 一人歌舞, 공옥진, 소극장강간사랑, 1979, KP A0115
 (1984) 무용예술 큰잔치 (공연프로그램) 중앙국립극장, 1984, KPC 0140
 (1985) 청소년공연예술제 (공연프로그램) : 국제청소년의 해, 중앙국립극장 : KBS 한국방송공사, 1985, PR00594, 상년속 하잔치 :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부채춤, 살풀이, 풍물놀이, 북춤) 명인전 (공연프로그램) : 한국인의 넋이 담긴 민족의 춤, 동국예술기획, 1990, KP H0156
 고부농민봉기 역사맛이 굿 (공연프로그램)

: 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 이영미 기증 자료, 1994, PR 39925
 (제7회) 아시아 1인극제 (공연프로그램) : 충청남도 개도 100주년 기념 특별공연 / 아시아 1인극 협회 한국본부, 1996년, (앤 마지막) 1인 창무극 심청전, KP Y0224
 공옥진 창무극 (공연프로그램), 공옥진, 중앙일보, 1998, KP P0235
논문
 김현정, '공옥진의 일인 창무극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 석사논문, 2000
 안미아, '공옥진의 춤 인생과 병신춤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2004
 김지원, '공옥진 1인 창무극에서 무의 한국적 정서와 예술적 가치 분석, 공연문화연구 제20집, 2010
 이명진, '명창 공대일의 삶과 예술세계, 실천민족학회 제15권, 2010
 이화진, '장자(莊子) 사상의 관점에서 본 밀양백중(密陽百中)놀이의 병신춤 심미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18권, 2010
 이진주, '공옥진 일인창무극의 전통 재창조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26집, 2013
 이은희, '전통의 창조적 수용에 관한 미학적 고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백현순, '공옥진 병신춤의 현대적 의미', 한국무용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6
책
 저 문순태, 『병신춤을 춤시다: 공옥진 인생 유전』, 문학예술사, 1982
 저 재희원,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 한길산문경신, 1985
 저 이규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예인 백사람』, 서울: 현암사, 1995
 최승훈, 『김은식의 한 속에서 깨어나는 신명, '1인 창무극' 창안자 공옥진』, 중등우리교육 2005년 12월호
 저 백승남, 『우리인물 이야기』 시리즈 제 7권 <춤은 몸으로 추는 게 아니라 깨, 우리교육, 2006

저 조해인, 『헤어질 수 없는恨의 모습까지들』, 해냄, 2006
 저 진옥실, 『노름마차』, 문학동네, 2013
 저 수전 웰덴, 역 강진영, 김은정, 황지성,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저 폴 발레리, 역 심우성, 『신체의 미학』, 현대미술사, 2013
 저 로즈메리 길런드 톨슨, 역 송홍일,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영광문화원 『근현대 영광군 인물사 영광의 인물』, 2016
연속간행물
 <공연평>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무대 : 공옥진의 『심청전』을 보고, 춤 : 통권50호 (1980.04), p.73-76
 (詩) 荒疎명인 잔잔해 : 孔玉振의 춤, 김해순, 1981, 춤 : 통권62호 (1981.04), p.14-15
 이명진, '명창 공대일의 삶과 예술세계, 실천민족학회 제15권, 2010
 이화진, '장자(莊子) 사상의 관점에서 본 밀양백중(密陽百中)놀이의 병신춤 심미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18권, 2010
 김지원, '공옥진 1인 창무극에서 무의 한국적 정서와 예술적 가치 분석, 공연문화연구 제20집, 2010
 이진주, '공옥진 일인창무극의 전통 재창조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26집, 2013
 이은희, '전통의 창조적 수용에 관한 미학적 고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백현순, '공옥진 병신춤의 현대적 의미', 한국무용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6
CD 녹음자료 (한양대학교)
 國樂, 十三集, 우리한바탕 1집
 -이관근, SKC, 녹음 디스크 1개 (67분)
 -박치는 대목(흥보가중) / 공옥진 창 : 민속연주단 반주 (23:18)
 國樂, 十四集, 우리한바탕 2집
 -황병기, SKC, 녹음 디스크 1개 (66분)
 -심봉사 누뜨는 대목(심청가중) / 공옥진 창 : 민속연주단 반주 (18:49)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
 극장의 마지막 불을 꺼주신 최선규님, 한춘전님, 이창노님,
 전통과 현재의 만남을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까지,
 모든 분께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린피그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		
원작	공동창작	분장	장경숙	극장장	우 연	시설관리	최선규	미디어팀장	이규승
연출	윤한솔	분장 어시스턴트	남혜연	극장운영팀장	도재형		한춘전	미디어팀원	신동석
출연	박하늘	의상	김경희	기획·제작PD	김지우	환경관리	이창노		이준결
	원규리	의상 어시스턴트	최세경		조유림		정연훈		장혜정
	임정희	조연출	강대영	고유진	박희수	임승언			
	정양아	무대감독	박현지	기획·제작AD	박세희	조은옥	장은희		
	최지연	홍보사진	조현우		송혜현	정연자	방유경		
	최지현	홍보영상	삼인칭시점	홍보·마케팅	이슬예	객석안내원	이다은		장진우
	황미영	인쇄물디자인	(주)디자인컴퍼니		유승정		전윤수		홍지형
	드라마터그	김민승	한국무용 지도	김옥순	기술·조명감독	피예경			윤소희
조명	최보윤	움직임 자문	김윤진	음향감독	이정욱		김서희		
조명 어시스턴트	김소현	연구예술의전당	임소연	음향조감독	김시철		김기연		
조명 크루	STAGE	인터뷰 협조	김유남	무대감독	정태환		김지영		
	WORKS		김현아	무대조감독	주무형		심지현		
	윤진선		극단 애인	시설감독	변기용		강호정		
	임학균		강보람	시설조감독	윤태균		김승연		
	최연수		강예슬	하우스매니저	김지은		김현지		
	홍주희		김지수	티켓매니저	유혜리		이민지		
	황인택		영광예술의전당	행정·총무	김영선		전미진		
조명 오퍼레이터	이승훈	공옥진 영상 자료 제공	천승오				장애림		
음악	장영규	도움주신 분	진옥섭				윤여정		
음향 오퍼레이터	구자윤						이우경		
영상	윤민철								
영상 어시스턴트	임유정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이 완성되기까지 전 과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 시즌 프로그램 협력극단 소식

예술무대 산

〈견우와 직녀〉

11월 23(금) 19:30 / 24일(토) 15:0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달래이야기〉

12월 1일(토) 18:00 / 2일(일) 11:00

Theatro India / 로마, 이탈리아

12월 4일(화) 10:00, 18:00

Kismet opera / 바리, 이탈리아

12월 8일(토) 13:30

나디아파크아트피아홀 / 나고야, 일본

프로젝트 내친김에

〈꿈〉

11월 8일(목)-11월18일(일)

나온씨어터

극단동

〈시민참여연극 - 기본소득 정책〉

프로젝트 워크숍2 - 인공지능

12월

마로니에 공연장 다목적홀 예정

신진작가와 새로운 글쓰기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창작희곡 상시투고 시스템

초고를 부탁해



창작초연 중심 제작극장

남산예술센터는 창작희곡 발굴과 작가 양성을 위해

<초고를 부탁해>를 운영합니다.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극작가의 피드백으로

극작 지망생들이 더 깊이 있는

극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고를 부탁해>는 상시투고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남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완성한 장막 희곡(뮤지컬, 영화 시나리오 제외)을 보내주세요.

<초고를 부탁해>는 전문 극작가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보내주신 모든 초고는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극작가에게 전달됩니다.

고연옥, 김명화, 박상현 3명의 극작가와 함께 합니다.

고연옥

작 <처의 감각> <손님들>
<주인이 오셨다> 외
수상 2015년 벽산희곡상
2013년 대산문학상

김명화

작 <첼로와 케첩>
<오이디푸스, 그것은 인간> <뚝날> 외
수상 2007년 차범석희곡상
2002년 대산문학상

박상현

작 <치정> <자객열전> <4천일의 밤> 외
연출 <조치원해문이> <공포>
<연변엄마> 외
수상 2004년 대산문학상

<초고를 부탁해>를 통해 발굴한 가능성 있는 희곡은 낭독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이직, 미정, 미확정의 무대 <서치 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낭독공연으로 제작하여 창작 희곡의 제작 경로를 다양하게 하고자 합니다.

<초고를 부탁해> 투고방법

접수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서울희곡플랫폼을 통해 접수

접수자격 자격 제한 없음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초고를 부탁해>프로세스

1차 피드백

1개 작품 당 1명의 극작가가
투고한 작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2차 피드백

1차 피드백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수정희곡에 대한
피드백을 한차례 더 제공합니다.

<서치라이트> 낭독공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낭독공연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장성익
서진
임태산
이유진
김장동
박정민
황무영
이준혁
최은경
홍철희
김동훈
이해미
민해심
임지성
김진섭
이정진
정현혜
고민지

김복동 연출/각

어제나, 어제다, 어제나

꽃 피게 구우~
구기 애구구~
준희미미 준비 천구구~

인문
사상
과학
사상
상상
두목

2018.10.25. - 11.04.

월일 19:30
토/일 15:00

남산예술센터 드림시멘터

NAMSAN ARTS CENTER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김재건
강애심
김상보
김아라나
박진호
장석환

희수민 연출 / 말러이 작

두 번째 시간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공연

2018.11.15.-11.25.

월일 19:30
토/일 15:00

남산예술센터 드림퍼센터

NAMSAN ARTS CENTER

SIDance 2018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10.1 Mon. -
10.19 Fri.

제21회 서울세계무용축제



photo by Yana Lozena

SIDance www.sidance.org 02.3216.1185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544.1555

예술의전당 www.sacticket.co.kr 02.580.1300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Kocca
콘텐츠문화광장
MULTI CONTENT TESTBED

주최 Hosted by 국제무용협회(CID-UNESCO) 한국본부 Seoul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Dance Council CID-UNESCO 주관 Organized by 제21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of SIDance 2018

후원 Supported by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서울특별시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cca CAMACG INSTITUT FRANÇAIS BRITISH COUNCIL GOETHE INSTITUT